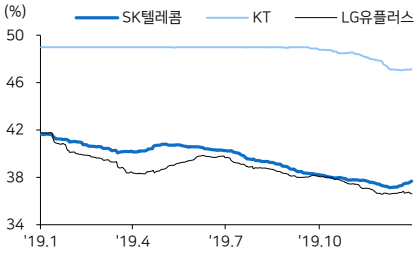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1W	1M	3M	6M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KOSPI	2.0	2.1	9.2	7.5	12.1	12.1	0.9	0.9	2.2	2.2
통신업종	1.6	-4.3	-1.7	-7.6	11.1	11.1	0.7	0.7	4.0	4.0
SK텔레콤	1.7	-2.9	-1.5	-9.4	16.4	11.8	0.8	0.8	4.3	4.3
KT	0.2	-3.2	-2.6	-6.5	10.2	8.9	0.5	0.5	4.2	4.4
LG유플러스	3.1	-5.3	-1.5	-3.2	13.8	12.0	0.8	0.8	3.0	3.0
AT&T	-0.5	-0.9	-0.2	16.0	10.8	10.6	1.5	1.4	5.3	5.4
Verizon	1.9	-1.2	-1.5	5.1	12.5	12.2	4.2	3.6	4.0	4.1
T-Mobile	4.0	7.7	0.7	5.4	20.6	17.1	2.4	2.2	0.7	3.2
Sprint	-1.2	-8.2	-24.9	-30.3	66.0	N/A	0.7	0.8	0.0	0.0
NTT Docomo	-0.7	0.2	8.4	18.0	15.4	17.0	1.9	1.9	3.6	3.9
KDDI	-0.9	1.0	11.3	14.2	12.8	12.0	1.9	1.7	3.1	3.4
Softbank	1.8	5.9	13.5	-1.3	8.5	11.0	1.6	1.3	0.5	0.9
China Mobile	3.1	6.6	0.1	-6.2	10.9	11.0	1.1	1.0	4.8	5.0
China Unicom	1.4	2.0	-13.9	-12.8	15.2	11.8	0.6	0.6	2.6	3.3
China Telecom	3.6	3.6	-11.8	-14.0	10.6	10.1	0.6	0.6	4.0	4.1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37.8% (+0.3%p WoW, +0.5%p MoM)
KT 47.1% (Flat WoW, -0.7%p MoM)
LGU+ 36.0% (-0.7%p WoW, -0.6%p MoM)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3주 연속 지속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 대폭 하락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4%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2월 MSCI 정기변경 시 LG유플러스의 지수 편입 비중 확대 기대감으로 기관들은 LG유플러스 순매수
한편, 영국 정부는 5G 망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국내 기관은 LG유플러스 순매수, SK텔레콤, KT 순매도, 외국인은 SK텔레콤, KT 순매수, LG유플러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 지분율 반등 속도에 주목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2019년 연말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
4Q19 멤버쉽 처리 방식 변화로 일시적 ARPU 하락이 예상되나, 2020년 연간 상승에 대한 기대는 유효
2020년 비용 증가보다 빠른 무선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외국인 지분율도 반등세 지속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3 주간 뉴스

▶ 中 최대 통신사 "올해 4분기에 5G SA 상용화" (ZDNet Korea)

- 차이나모바일은 5만 개의 5G 기지국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에 SA를 상용화할 것이라고 발표
- 5G SA 코어망 장비 구매를 시작했으며 총 예산이 25억4천만 위안(약 4천300억원)을 넘는 수준
- 2020년 1월 1일부터 5G 단말기에서 SA 모드만 허가하고, 신규 NSA 5G 기기 시장 진입을 봉쇄
⇒ 차이나유니콤이 지난해 연말 5G SA 퍼스트콜 개통을 시연하는 등 타 통신사도 SA를 준비중
⇒ 중국의 NSA 진입은 늦었으나 SA는 빠르게 상용화할 전망. 관련 통신장비주들의 수혜 기대 가능

▶ KT 구현모號, 젊고 빨라졌다 (전자신문)

- 구 KT 내정자는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 임원 수는 98명으로 지난 연말 대비 12% 감소
- 기존 커스터머&미디어부문과 마케팅부문을 합쳐 커스터머부문, AI/DX융합사업부문 등을 신설
- 전무 이상 임원 8명 감소. 신규 임원 21명 가운데 27%가 1970년대생. 젊고 유연한 조직 지향
⇒ 조직 개편을 통해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기대. AI, 빅데이터, 미디어 사업부문에 중점 방향
⇒ 3월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 이후 유료방송 관련 M&A 등 미디어 사업 전략에 투자자 관심 집중

▶ LG헬로비전, LG유플러스 알뜰폰 서비스 임박... 5G도 출시 (전자신문)

- LG헬로는 '헬로모바일'을 통해 이달 말 LGU+ 망을 통한 알뜰폰 서비스 시작. 전산등록을 완료
- 기존 CJ헬로 시절에는 KT와 SK텔레콤 망을 임대. KT망 가입자는 약 63만명, SKT는 약 6만명
- LGU+ 망 활용하여 5G 서비스를 처음으로 출시한다는 점도 주목. 다만 출시 일정은 변동이 가능
⇒ LGU+ 알뜰폰 상품을 기점으로 차후 인터넷, IPTV 등을 통한 결합상품도 차례대로 출시할 계획
⇒ 합병 이후 시너지를 창출하는 최초의 행보. 콘텐츠 구매, 고정비 절감 면에서 추가 시너지 가능

▶ SKT-싱클레어 합작회사 출범…미국 ATSC 3.0 방송사업 본격화 (연합뉴스)

- SKT는 미국 지상파 방송사인 싱클레어 방송그룹과 방송장비 합작회사 '캐스트닷에라'를 설립
- 상반기 중 ATSC3.0 고화질 방송을 시작. 전미 방송국 30여곳에 ATSC 3.0 장비를 공급할 예정
- SKT의 모바일 MMT와 싱클레어가 가진 스포츠 콘텐츠를 기반으로 연내 초저지연 OTT 출시
⇒ ATSC 3.0 방송은 기존 방송보다 빠른 속도로 고화질 전송 가능. 미국 내 빠른 확산이 전망
⇒ CES 기간 중 글로벌 회사들과 적극적 협력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해외 미디어 사업 성장이 기대

▶ 화웨이 제외하면 5G 투자비용 30%↑…英, 배제 안한다 (아이뉴스24)

-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화웨이 배제시 5G 투자 비용이 29%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5G 투자비 증가율이 뚜렷한 것으로 예상
- 최근 영국 정부는 미국 규제 불구, 5G 망 설치에 특정 브랜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 한편 미국은 무역협상과는 별개로 화웨이 규제 확대를 고려 중. 기술 수출 제한 기준 상향 시도
⇒ 영국이 '파이브아이즈'의 일원이니 만큼 화웨이 5G 장비를 채택한다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통신3사, 전국 지하철 5G 서비스 개통 박차 (매일경제)

- 통신 3사는 광주광역시 지하철 전 노선에 5G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5G 서비스 개통을 완료
- 지하철 통신망의 경우 어두운 선로 내 기술적, 안전상 문제가 있어 통신 3사가 공동 구축을 추진
- 3월까지 대구와 대전, 부산 지하철 전 노선에 5G 구축을 완료. 연말까지 전국 지하철 구축 완료
⇒ 3사 간 협력 및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지하철, 버스 등 교통시설 내 5G 구축은 순항 이어갈 전망
⇒ 국내 5G CAPEX는 2020년에도 전년 대비 성장이 예상되며, 따라서 통신장비 수요도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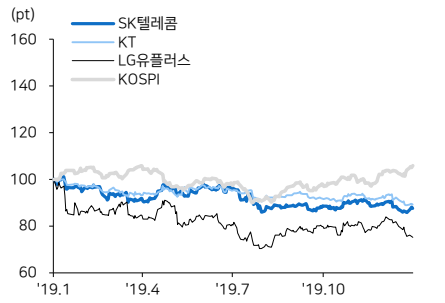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한국	SK텔레콤	235,000	16.3	15.5	16.2	1.1	1.2	0.9	1.3	4.4	4.7	5.5	5.2	4.9	6.5
	KT	26,100	5.9	20.9	21.6	1.0	1.1	0.6	0.6	4.1	4.2	2.7	2.6	5.0	5.4
	LG유플러스	13,500	5.1	11.0	11.5	0.6	0.6	0.4	0.4	2.3	2.5	3.4	3.1	6.1	6.8
미국	AT&T	38.4	280.4	181.4	182.0	36.8	37.2	25.1	25.3	59.5	59.7	8.0	8.0	13.2	13.1
	Verizon	60.1	248.7	131.7	133.5	31.1	32.1	19.4	20.5	47.8	48.8	7.9	7.7	35.4	32.1
	T-Mobile	82.2	70.3	44.9	47.5	5.8	6.8	3.4	4.2	13.3	13.8	8.4	8.1	11.2	13.7
	Sprint	4.8	19.8	33.4	32.3	2.7	1.7	0.3	-0.5	12.6	11.1	4.8	5.4	1.2	-1.4
일본	NTT Docomo	3,058	92.6	43.2	42.2	9.0	7.8	6.2	5.4	13.7	13.3	6.6	7.1	12.6	11.2
	KDDI	3,265	69.8	46.5	47.4	9.2	9.4	5.6	5.7	14.4	15.7	5.7	5.3	15.5	14.8
	Softbank	4,881	92.6	86.2	87.8	16.5	8.1	10.8	8.7	27.6	23.8	8.4	9.8	14.6	12.4
중국	China Mobile	66.2	174.5	108.0	111.2	16.1	16.2	15.6	15.8	41.4	42.4	3.0	2.9	10.0	9.7
	China Unicom	7.2	28.2	42.2	44.1	2.0	2.7	1.9	2.4	13.6	14.3	2.1	2.0	4.0	5.1
	China Telecom	3.2	33.3	55.8	57.9	4.6	4.7	3.1	3.3	16.5	17.0	2.9	2.8	6.3	6.4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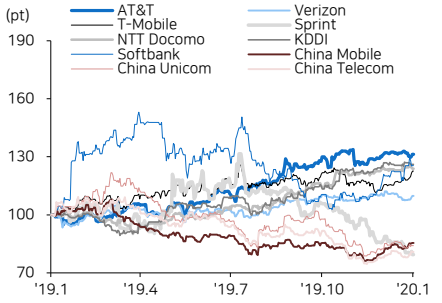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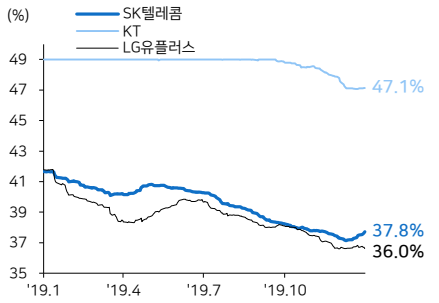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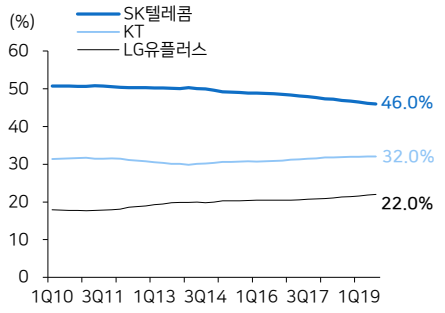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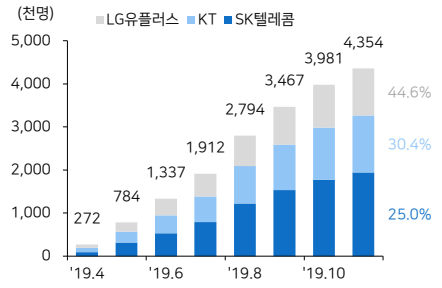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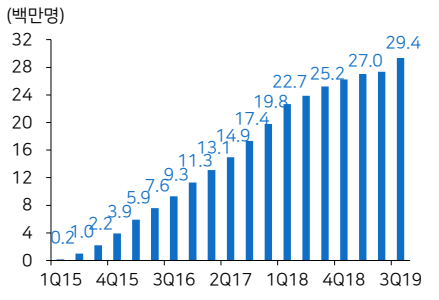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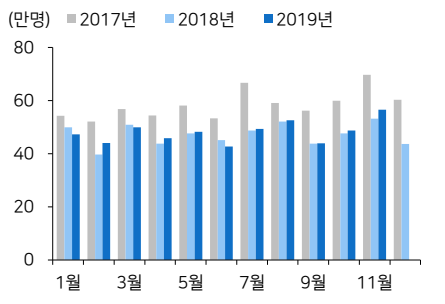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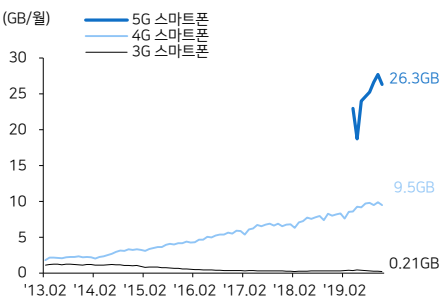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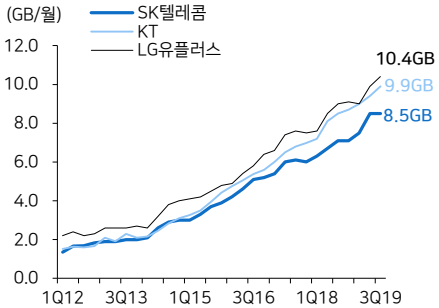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